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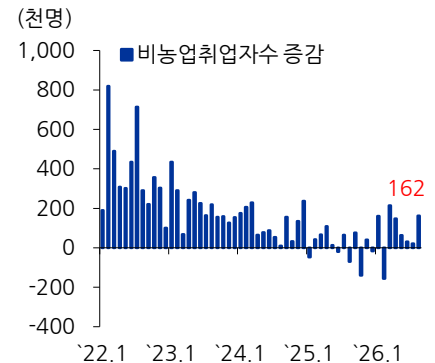
Global Economy
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
6145/isbang@eugenefn.com

8월 고용: 일시적 반등, 금리 결정은 물가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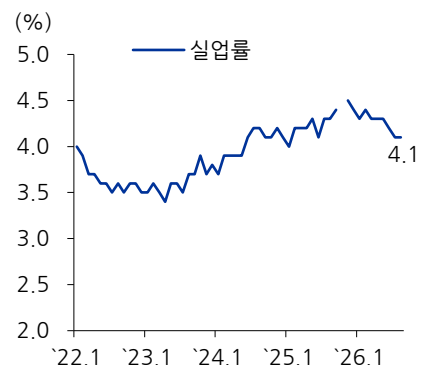
- “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+16.2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(+5.3만명)을 3배 가까이 상회,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임. 6월(+2.0만→+3.1만)과 7월(-2.3만→+2.1만)도 함께 5.5만명 상향 조정되어 7월의 순감소는 소멸. 3개월 평균은 +7.1만명으로 회복됨. 지난달의 ‘완만한 둔화 재개’가 한 달 만에 되돌려졌으나, 반등의 상당 부분은 일시적 요인임.
- “ 실업률은 4.1%로 전월과 동일(예상 4.2%). 다만 유지의 질이 다름. 노동력이 68.3만명 급증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.6%(+0.2%p), 고용률은 59.1%(+0.2%p)로 반등함. 지난 두 달의 실업률 하락이 공급 위축의 결과였다면, 8월은 공급 유입을 고용이 흡수한 구도임.
- “ 업종별로는 음식·주점(+5.9만명, 12개월 평균 +1.2만명)과 지방정부 교육(+4.2만명)이 증가의 3분의 2를 차지함. 월드컵 반작용과 7월 감소(-5.0만명)의 되돌림 성격이 강해 지속성은 제한적임. 제조업(+1.6만명)과 건설(+2.2만명)은 견조했으나, 헬스케어(+1.3만명)는 12개월 평균(+3.2만명)을 크게 하회함. 정보(-2.3만명)는 데이터처리·웹호스팅과 출판 중심으로 감소해 AI의 고용 대체 논란을 재점화함.
- “ 시간당 임금은 37.75달러로 전월 대비 10센트(+0.3%) 상승했으나, 전년 대비 +3.1%로 전월(+3.2%)보다 낮아져 2021년 이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함. 주당 근로시간은 34.4시간(+0.1시간). 고용은 뜨거워졌지만 임금 상승 압력은 계속 식어가고 있음. 실질임금(7월 CPI +3.4%)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소비 둔화 가능성을 시사함.
- “ 7월 고용 부진과 CPI 둔화로 40%까지 후퇴했던 9월 인상 확률은 잭슨홀에서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56%까지 반등함. 이후 월러 이사의 동결 지지 발언으로 50% 내외에 하락했음.
- “ 8월 고용 서프라이즈로 무게추는 다시 금리 인상 쪽으로 이동.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60%까지 상승(CME FedWatch). 10년물 국채금리는 4.79%(+3bp)로 상승했고, 달러는 강세를 보임. 다만 반등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 요인이며 임금 둔화 속 금리 인상을 확정하기엔 부족함.
- “ 8월 물가지표가 9월 FOMC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. 기준은 근원물가임. 유가 반등으로 헤드라인 재상승은 불가피하나, 근원 +0.2%mom 이하를 유지한다면 동결 명분이 강화됨. 반면 +0.3%mom 이상으로 상승하면 고용 서프라이즈와 맞물려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함.

비농업취업자수 +16.2만명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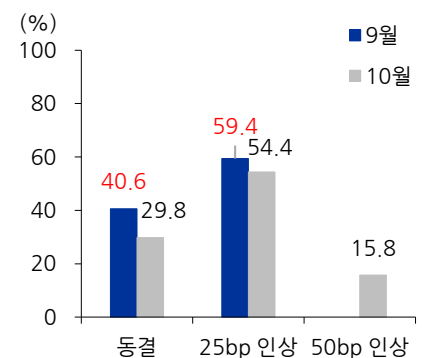
자료: BEA, 유진투자증권

실업률은 4.1%로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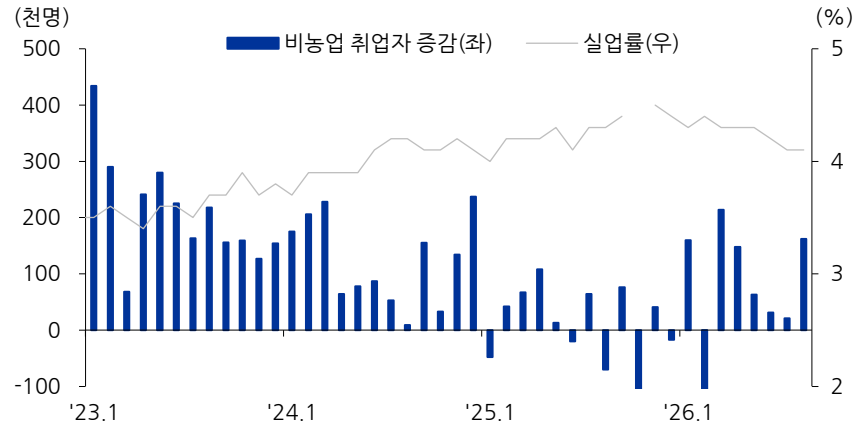
자료: BEA, 유진투자증권

9월 인상 가능성은 60% 가까이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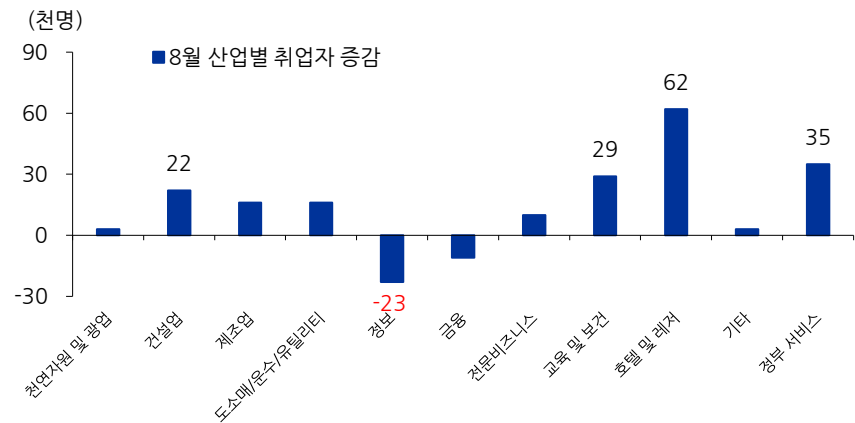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비농업 부문 취업자는 +16.2 만명 증가, 실업률은 4.1%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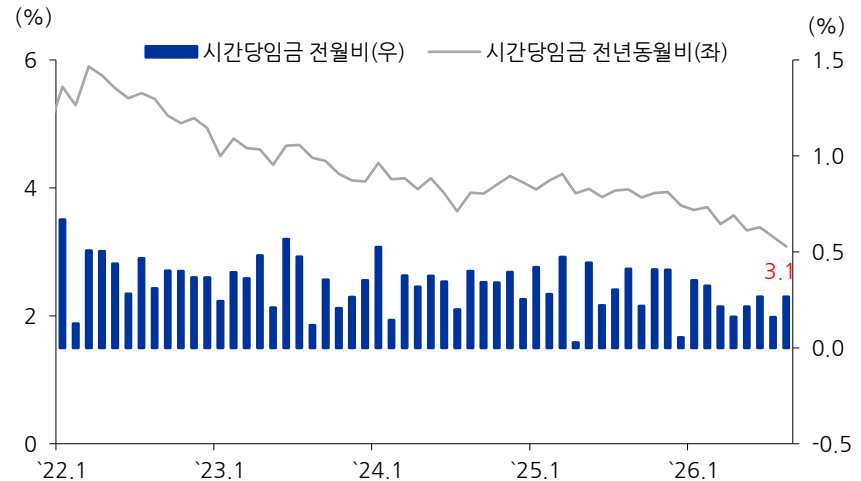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음식·주점과 지방정부 교육이 증가 주도, 정보 부문은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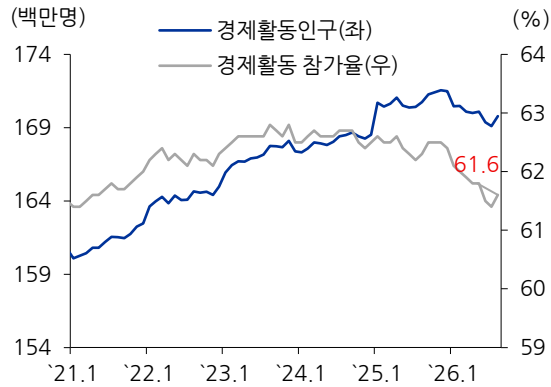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시간당 임금은 +3.1%yoy로 2021년 이후 최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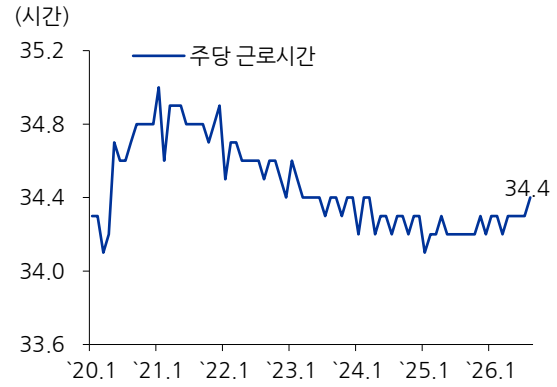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경제활동참가율 61.6%로 반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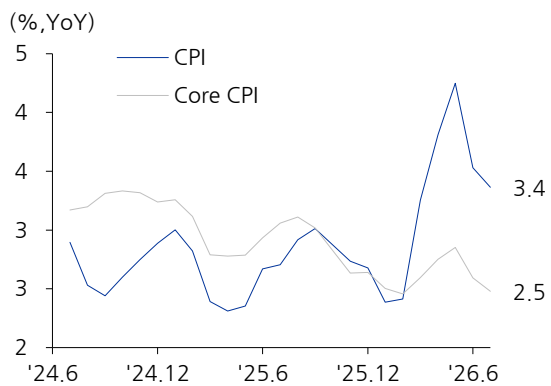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주당 근로시간은 34.4 시간으로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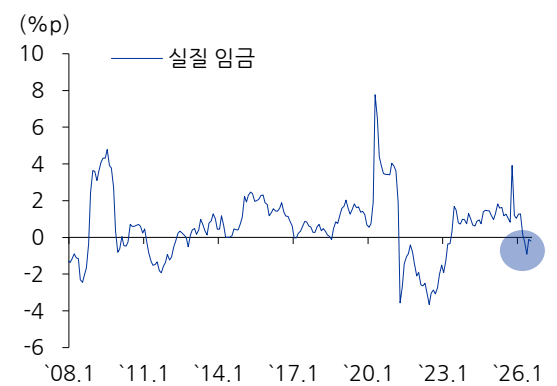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헤드라인 물가는 +3.4%yoy로 2개월 연속 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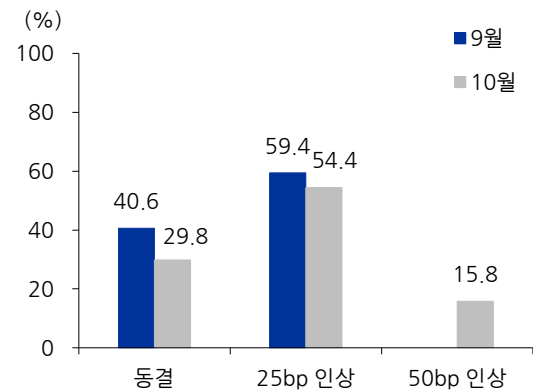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미국 실질임금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영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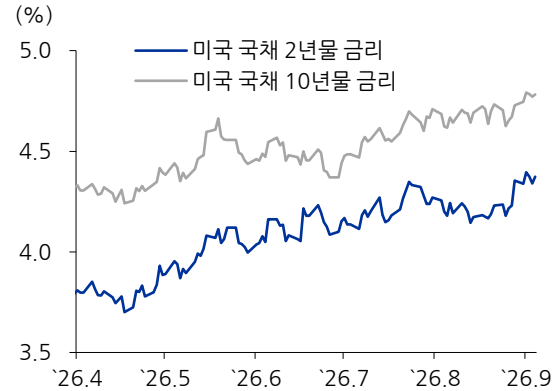
자료: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재상승


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美 2년물 국채금리는 4.374%로 상승



자료: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